



가톨릭마산

제2380호 2019년 10월 27일
연중 제30주일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세리의 마음으로 바리사이가 실천한 삶을!

바리사이들은 자신들이 강도 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친다고 합니다. 교만이 가득 배어 있는 오만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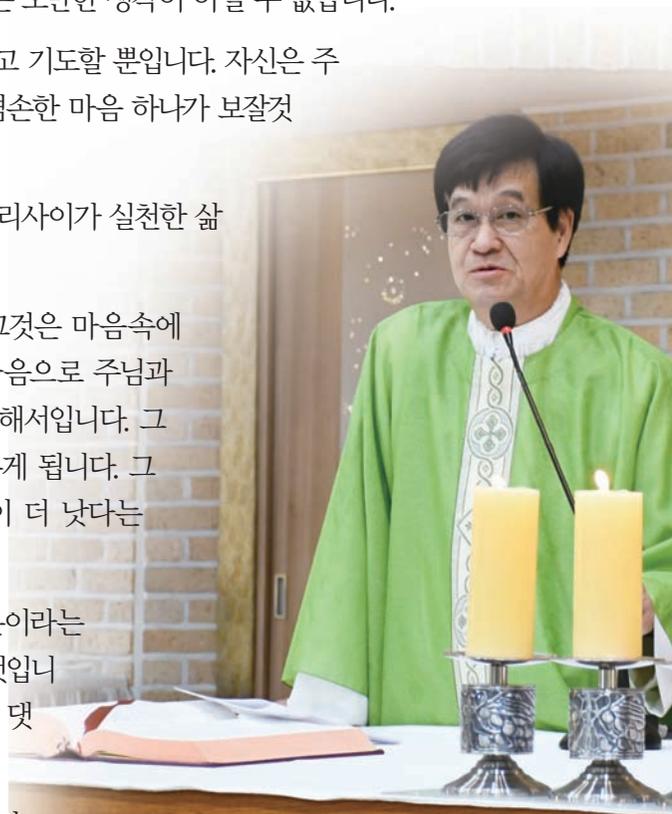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자신은 주님 앞에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하나가 보잘것 없는 모든 삶을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이 두 삶을 비교해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 봅니다. “세리의 마음으로 바리사이가 실천한 삶을 산다면 참으로 이상적인 삶이 될 수 있겠다” 하고 말합니다.

정의롭게 살고 단식을 하고 십일조를 바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마음속에 가득 찬 세속을 비우고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 마음으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삶의 선물에 감사하면서 참다운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리사이처럼 교만하면 세상을 비우는 대신 탐욕으로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단식과 십일조가 마음을 교만하게 만든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은 겉먹은 새와 같다고 합니다. 조금만 부담스러워도 떠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겸손으로 기다릴 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과 탐욕으로 자신의 열성을 과시하고 자신의 노력에 대해 댓가를 요구할 때 그 하느님은 부담스러워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봉헌하고 하느님이 베풀어주신 삶의 은총에 감사드릴 때 주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겠습니다.



노영환 마티아 신부 | 함안본당 주임

주일 진례

입 당 송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본 기 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제 1 독 서 집회 35,15ㄴ-17.20-22ㄴ

화 답 송 ◎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 주셨네.

제 2 독 서 2티모 4,6-8.16-18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복 음 루카 18,9-14

영성체송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김현주 올리아나 가톨릭여성회관 관장

세계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렬하다. 이라크에서는 지난 1일부터 만성적인 민생고 해결과 부패 척결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로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4,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홍콩은 주택, 사회적·경제적 소외, 불충분한 의료 서비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교육제도, 본토 인구의 유입, 사라져 버린 사회적 사다리, 위협받는 홍콩의 자유 등 복합하게 얽힌 문제가 ‘송환법 철회’ 투쟁으로 터져 나왔으나 정부의 수용으로 잠시 누그러지는 듯했다. 그러나 5일 정부가 ‘복면금지법’을 발효하면서 한층 시위가 고조되어 사실상 계엄령이 발동된 상태다. 이렇듯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시위와 특별히 올해 부마 민주항쟁(1979년 10월 부산 및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박정희의 유신독재에 항거한 민주항쟁) 40주년을 맞아 부마 민주항쟁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는 것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유례없는 ‘촛불혁명’이라는 평화적 시위 문화를 만들어낸 데 대한 뿌듯함, 오늘의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무수한 민주 선열들에 대한 고마움,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민주 시민들에 대한 존경심,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지만 홍콩·이라크 등에서 더이상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 등이다.

최근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여러 차례 열렸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성직자와 수도자 4,477명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선언을 하면서 “(이번 사태는) 국가의 공권력을 가진 검찰이 헌법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 주는 것이었고, 법 안에서 누렸던 그들의 특권과 무소불위 권력의 속살을 보여줬다. 검찰의 손에 쥐여 준 같은 병폐와 부정부패, 적폐를 잘라내고 억압받는 이, 가난한 이들을 더 큰 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하지만, 오히려 힘없는 민중을 협박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죽이며, 개혁과 변혁을 가로막는 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칼이었다”고 하였다. 때로는 ‘법대로 한다는 사람들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다. 법의 정신은 사람을 존중하고, 만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7일 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국민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장관 임명을 두고 목소리는 나뉘었지만 결국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으니 이 또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이룬 역사의 물결이 아닌가 싶다.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이 거리로 나올 이 유도, 분열될 일도 없을 것이다. 입법·행정·사법이 독립적이면서도 견제할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통받는 각 나라의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의 평화로움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520번째 이야기

티로와 시돈 3

신은근 바오로 신부 · 신안동본당 주임

시돈(Sidon)은 티로 북쪽 40km 지점에 있다. 인구는 30만 정도. 무슬림이 80%를 차지한다. 레바논 3번째 도시다. 아랍어 사용권이기엔 시돈은 사이다(Saida)라 불린다. 터키와 프랑스도 사이다로 부른다. 희랍어와 히브리어에서 시돈이라 했고 라틴어와 영어도 시돈이다. 우리말도 영어표기를 따라 시돈이라 부른다. 말뜻은 어장 또는 어촌이다. 예부터 티로와 경쟁하며 발전했다. 기원전 333년 알렉산드로스 침공 때 티로는 항전하다 망했지만 시돈은 순응하며 살아남았다. 레바논(Lebanon) 역시 영어표기다. 아랍어는 루브난(Lubnan) 말뜻은 ‘하얗다’는 의미. 해발 3,000m 가까운 산맥에 만년설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현재 레바논 면적은 경기도 정도로 작지만, 한때는 지중해를 석권했던 페니키아인이 그들의 조상이다.

북이스라엘 전성기를 구가했던 인물은 7번째 임금 아합(Ahab)이다. 그는 시돈 왕국 공주였던 이제벨을 왕비로 맞이했다.(1열왕 16,31) 왕권 강화를 위해 외부 세력을 끌어 들인 것이다. 이제벨은 바알 숭배를 추진했고 예언자 그룹은 반발했다. 열왕기 상권엔 아합과 이제벨의 악행이 모질게 기록되어 있다. 시돈은 죄악의 도시였다. 중세 때 십자

군은 성지탈환을 시도한다. 시돈을 점령한 뒤 항구로 이용하면서 새롭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1249년 무슬림이 파괴했고 1260년 몽골에 의해 다시 파괴되면서 망각의 도시가 되었다. 17세기 오스만 제국에 의해 새롭게 상업 도시로 부활했다. 지역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모님과 함께 시돈을 방문하셨고 항구가 보이는 만타라(mantara) 언덕에 성모님께서 사셨다고 한다. 1세기 이곳엔 기념성당이 세워졌고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다.

페니키아인은 자신을 카나아니(Canaani)라 했다. 가나안 사람이란 뜻이다. 페니키아란 말은 여기서 유래되었다. 그리스인은 포이니케(Phoinike)라 했고 로마인은 포에니치아(Phœnicia)라 했다. 로마와 카르타고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 부르는 이유다. 카르타고는 페니키아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페니키아를 대표했던 시돈은 바알(Baal)을 으뜸 신으로 모셨다. 바알은 주인이란 뜻이다. 자연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는 의미다. 바알은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비를 주관하는 바알과 바람을 다스리는 바알 등 여럿이 있었다. 유일신을 섬기던 히브리인에게엔 우상숭배였다. 티로와 시돈은 이스라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주님! 김영식 알로이시오 사제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교구 원로사목자 김영식(알로이시오) 신부가 10월 19일(토) 오전 1시경에 선종했다. 장례미사는 10월 21일(월) 교구 안팎의 사제들과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기현 주교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많은 분들의 애도 속에, 고인은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에 묻혔다.

| 약 력 |

1949. 4.25.	경남 고성 출생	1987. 2. 3.-1989. 9. 12.	장재동본당 주임신부
1965. 2.	서울 성신고등학교 졸업	1989. 9. 13.-1992. 8. 18.	산호동본당 주임신부
1977. 2.	광주가톨릭대학교 졸업	1992. 8. 19.-1993. 8. 16.	안식년
1976. 5.	부제 수품	1993. 8. 17.-1998. 1. 19.	거창본당 주임신부
1977. 7. 5.	사제 수품	1998. 1. 20.-2001. 1. 30.	남해본당 주임신부
1977. 7. 5.-1977. 12. 27.	남성동본당 보좌신부	2001. 1. 31.-2003. 1. 13.	하대동본당 주임신부
1977. 12. 28.-1979. 12. 28.	산청본당 주임신부	2003. 1. 14.-2008. 12. 28.	휴 양
1979. 12. 29.-1983. 1. 30.	삼천포본당 주임신부	2008. 12. 29.-2011. 1. 6.	덕산동본당 주임신부
1983. 1. 31.-1985. 1. 27.	양곡본당 주임신부	2011. 1. 7.	은퇴(원로사목자)
1985. 1. 28.-1987. 2. 2.	거제본당 주임신부	2019. 10. 19.	선종

술만 마시면 폭력적인 남편, 더 이상 참기 힘들어요

Q

결혼 15년 차로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지냈습니다. 술만 마시면 난폭해져서 가족들을 괴롭히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이 아주 싫었습니다. 다행히 저와 처지가 비슷한 친구가 있어서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며 학창 시절을 그런대로 무난히 넘겼습니다. 그 당시 학교는 저의 놀이터였고, 피난처였습니다. 제 소원은 가난하지 않고 폭력이 없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20세에 만난 남편은 생활력이 강하며 말없이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도 늘 저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기념일을 소홀히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도 용돈을 넉넉히 드리는 사위였습니다. “이 서방은 똥도 버릴 게 없다.” 친정어머니의 최고 칭찬이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식당과 농사일을 병행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이 쓸쓸 모이는 재미가 너무 좋았습니다. 정치 좋은 계곡 옆 땅도 샀습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나이 들면 여기에 펜션을 짓자고 약속도 했습니다. 제 인생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5년 차부터 슬슬 술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날씨가 껏어서 일을 하지 않는 날이면 어김없이 술을 마십니다. 이성을 잃고 폭력적으로 시비를 걸거나 난폭하게 행동하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술이 깨면 전혀 기억을 못 합니다. 그즈음 저의 시아버지도 술로 가족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고 일찍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무슨 알곳은 운명인지요?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남편의 술주정이 시작되면 우리 모자는 털털 떨다가 이웃집으로 피신하고 아이들이 잠들면 저는 남의 집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본 엄마와 판박이 모습에 놀랐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게 좋은 어머니였지만, 아들 입원 치료에는 소극적입니다. 그냥 참고 살라고 하십니다. 저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두 아들에게 제가 겪은 그 슬프고도 암울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A

정말 힘드시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남편에 대한 실망과 아무리 애를 써 봐도 반복되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참으로 우울하시겠군요. 거기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분노,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원망, 가난이 가져다준 상처까지 보태져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절망감을 견디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인 것은 두 아이를 배고 낳고 양육하는 동안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내신 겁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 속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가족이 지낸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만족할만한 결혼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학창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 친구와 의지하며 나름대로 잘 헤쳐 나왔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계곡 옆에 마련한 땅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이리저리 힘들게 견디며 살아오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결심을 하셨군요. 맞습니다. 폭력, 특히 알코올을 동반한 폭력이 있는 가정은 절대 안 됩니다. 용기를 내어 집을 나오십시오. 모자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안전한 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잘 건사하며 낫설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세요.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정리가 필요합니다. 폭력 가정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느라 일찍 철이 들어 보이고 의젓하게 보이지만,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이 증폭되어 스트레스 대처가 몹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따뜻한 치료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사춘기 아들을 사랑과 인내로 잘 키우세요. 엄마가 지혜롭고 당당해야 아들이 잘 보고 배웁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세요. ‘남편이 미워서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다. 술과 폭력을 피해 나간다. 나는 자녀에게 절대 대물림하지 않겠다.’

알코올중독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버림받고, 아내가 떠난다는데 무엇을 망설이고 주저하셨습니까? 당신이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세계 기부지수

영국 자선지원재단(CAF: Charities Aid Foundation)은 매년 '세계 기부지수'를 발표합니다. 작년 2018년에도 146개국에서 평균 1천 명의 인터뷰를 통해 ①낮선 사람을 돕는 것 ②돈을 기부하는 것 ③자원봉사 시간 등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해 점수를 매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고, 최대, 최초, 1등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계 기부지수' 1등 국가는 어디이며 우리나라는 몇 등이나 했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둥! 1등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우리나라는 60등을 했습니다. 146개국 중에 60등이면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부끄러운 지경입니다. 세계 경제 규모 12위, 인구 5천만 명 이상 가진 나라 중, 3만 불 이상 국민 소득 7위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기부지수는 고작 60등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1년에 81위에서 2017년 62위로 그리고 작년에 60위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점차 나아지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여기는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기부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부지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부란 경제력과 꼭 일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가난하더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기부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돈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시간을 나눌 수도 있고, 신앙인이라면 기도도 나눌 수 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나눌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것은 세계 경제력 3, 4위 한다는 일본이 128위라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괴롭힐 줄이나 알지 나눌 줄을 모릅니다.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가을 사랑

민창홍 사도요한 • 시인

영혼의 뜨락 
교구 가톨릭 문인회

가을 사랑을 앞에 놓고 커피를 마신다. 그녀는 방금 무대에서 기타를 메고 열창을 했다. 환갑의 나이에도 젊은 시절의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무대를 휘어잡았다. 행사 후 지인들 맞이 모이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다. 팬들이 늘 '가을 사랑'만 기억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래서 신곡은 가을 사랑과 다른 풍의 노래를 준비했다고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노래 홍보라기보다는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느꼈다.

노래를 한 달만 쉬면 노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녀의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연습을 하지 않으면 노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아하다. 최근에는 라이브 카페가 없어서 노래를 매일 부를 기회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궁리한 것이 교회 성가대에 가서 노래한다고 한다. 소프라노 파트를 하는데 간혹 '가수의 소리가 왜 이래' 하고 핀잔을 듣기도 한단다. 그래도 성가대를 하는 이유는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은 노래해야만 자신의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수공이 간다. 나도 시를 쓰고 있지만 한 달 정도 시를 읽지 않고

쓰지 않으면 시가 무너진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물며 신앙생활은 어떨까? 신앙은 말 그대로 생활이다. 그런데 주변에서 냉담자들을 한 번씩 본다. 그분들은 대체로 아주 작은 생각에서 냉담을 출발하는 것 같았다. 어떤 일로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그다음 주는 또 어떤 일로 빠지게 되면서 한 달만 쉬었다가 가자고 하다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것이다.

생활에는 리듬이라는 것이 있다. 개개인의 일과가 매일 크게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피곤하여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적어도 그 사람만이 가지는 생활 속 리듬이 있기에 조절하면서 살아간다. 그 조절 속에 변화가 있는 것이고 변화 속에서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삶을 한 달쯤 쉬다고 생각해 보라.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천재성을 가진 가수도 연습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노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의 신앙도 꾸준한 노력과 함께 매너 리듬에 빠지지 않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낙엽이 거리에 하나둘씩 날리고 있다. 가을이다. 하느님의 사랑을 앞에 놓고 차한잔하고 싶다.

교구장 동정

교리교사의 날

일사: 10월 27일(주일)
장소: 성지여고

위령의 날 교구합동위령미사

일사: 11월 2일(토) 11:00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건진성사

일사: 11월 3일(주일)
장소: 칠원성당

교구/본당

사제평의회

일사: 10월 29일(화) 10:30
장소: 교구청

2021학년도 신학교 지원자 모집

일사: 11월 중
문의: 성소국 055·249·7061

위령의 날 교구합동위령미사

일사: 11월 2일(토) 11:00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문의: 사무처 055·249·7016~7

신앙대학

일사: 11월 2일(토)~3일(주일) 1박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사무국 055·249·7021~3

청년로고스 성경통독피정 안내

일사: 11월 2일(토) 13:00~3일(주일) 15: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성경에 관심 있는 청년(선착순 20명 마감)
참가비: 1인당 5만 원(독방 희망 시 7만 원)
신청마감: 10월 27일(주일)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 검색

16차 약혼자 주말

일사: 11월 15일(금)~17일(주일) 2박3일
장소: 성혈 영성의 집
문의: 가정사목국 055·249·7028~9

성모신심 묵상회 6주간

장소: 평거동성당(진주)
일사: 11월 5일(화)~12월 10일(화)
강사
1주: 11월 5일(화) 황병석(파스칼)신부
2주: 11월 12일(화) 최봉원(야고보)신부
3주: 11월 19일(화) 정운호(베드로)신부
4주: 11월 26일(화) 신동규(다미안마리아)신부
5주: 12월 3일(화) 강영구(루치오)신부
6주: 12월 10일(화) 박지영(살비아)수녀
미사 주례: 주용민(리노)신부

위원회/기관/단체

레지아 평의회

일사: 11월 3일(주일)
장소: 교구청
문의: 레지아 055·249·7115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화미사 안내

일사: 11월 3일(주일) 15:00
장소: 남성동성당
문의: 농아선교회 011·9207·8856

병원 미사 안내

마산: 삼성병원 매주(금) 18:00
본관 2층 1회의실(접수·수납 창구 맞은편)
창원: 파티마병원 매주(수) 16:00
매(주일) 09:30 7층 성당
창원병원 매주(수) 18:00 지하 1층
경상대병원 매주(토) 15:00 천주교 원목실
진주: 경상대병원 매주(토) 16:00
암센터 지하1층 천주교 원목실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첫째 주(화) 10:30 교구청
창원: 첫째 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첫째 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첫째 주(월) 10:00 하대동
문의: 윤지령(요세파나) 010·4490·6996

수도회

렉시오 디비나 피정

내용: 유덕헌 아바스와 최재용 원장이 함께 하는 자연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일사: 매주(토) 14:00~(주일) 14:00
장소: 고성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010·2816·1986

젊은이 2박3일 마음피정 '하느님을 만나는 길'

일사: 11월 15일(금) 20:00~17일(주일) 13:00
장소: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부산 본원
대상: 40세 이하 미혼 자매 (15명 선착순)
참가비: 6만 원
문의: 예수성심전교수녀회 010·8811·6187

기 타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국내 입양 전문 기관

문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02·764·4741~3
www.holyfcac.or.kr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는 관광 및 성지 안내와 함께 차량, 호텔, 펜션 예약이 가능합니다.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2020년 살레시오여름신앙학교

접수: 20년 1월 2일(목)09:00~(선착순 250명마감)
대상: 중고등부4차, 초등부4차
일정: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참고
문의: 062·373·0942, 010·7412·0942

품격순례	본도여행사 www.bundotour.com	
2월 1일 KOREAN AIR	이스라엘 요르단	12일 439 만원
2월 10일 Asiana Airlines	유럽 3대 성모발현지	13일 395 만원
2월 12일 Asiana Airlines	유럽 3대 성모발현지	13일 395 만원
2월 13일 KOREAN AIR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39 만원
본도여행사 02.852.8525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굴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종 세트 10개 1박스
3종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SHINSEGAE UROLOGY & SKIN CLINIC

피부질환/ 비뇨기질환 · 수술/ 전립선암 검진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F(자유시장 사거리)

수맥홍(홍)침대

주부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 · 신문 광고 中
1588-5335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공모

사목국에서 10월 특별 전교의 달을 맞이하여 실시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공모 당선작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선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며, 당선 원고는 2020년도 사순시기 묵상집에 실리게 됩니다. 그밖에 공모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당선작 소속본당/당선자/공모내용

- 대방동본당 박명호 돈부스코 (장재춘 베드로, 임채영 라이문도)
- 월남동본당 김현경 아네스 (김옥대 라이문도)
- 장재동본당 권문희 안나 (이난엽 마리아나)
- 칠 원 본 당 박상섭 요셉 (지성락 토마스)
- 하대동본당 성경희 데레사 (성연중 베드로)
- 정미애 노엘라 (한미숙 요셉피나)



송구영신 피정

일시: 2019년 12월 31일(화) 16:00~2020년 1월 1일(수) 10:00
 장소 및 주관: 마산가톨릭교육관
 내용: 피정 및 송년미사, 신년 대축일 미사
 입금계좌: 농협 351-0006-1186-53 (재)마산교구
 준비물: 세면도구(수건포함), 개인컵, 미사준비
 신청: 055·221·1891~2, 선착순 마감



제13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심사·발표

지난 9월 30일로 마감한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작품을 10월 8일 오전 교구청 미디어국에서 정연우 신부, 문옥영 시인, 황광지 수필가, 우무석 시인, 유희선 시인의 심사로 입상자가 가려졌다. 아쉽게도 수필부문에서는 입상자를 내지 못했고, 시부문 당선과 소설부문 가작을 선정했다.

축하합니다

- 시부문 당선**
박 수 영(베아트릭제) 상남동본당
- 소설부문 가작**
이 원 구(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진영본당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주례	문의
교 구	10월 28일(월) 19:00	월남동성당	신앙과 관계회복	김재중(요셉, 광주교구 치유봉사자)	최용진 신부(아나시오)	010·5072·5612
창원지구	10월 28일(월) 19:00	반 송 성 당	너는 이것을 믿느냐	서정혁 신부(프란치스코, 청주교구)	최재상 신부(마티아)	010·9421·3377
진주지구	10월 28일(월) 19:30	옥 봉 성 당	믿음과 감사	박혁호 신부(미카엘)	박혁호 신부	010·9697·4224
청 년	매주(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목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 미사, 셋째주 :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1월 3일(주일) 10:00	서울 돈암동 본부	010·9937·0901	korvocation@columban.or.kr

 <h3>라파엘여행사</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라엘,오르단 10일 11/18, 12/3 (289만원) ◆ 이스라엘 9일 1/5 (299만원) ◆ 이태리 9일 11/7 (279만원) 1/21 쿠폰(299만원) ◆ 성모발현지 13일 10/28(399만원), 2/3 (389만원) <p>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p>	<h3>진영삼성안과</h3> <p>대학병원급 장비보유 백내장·녹내장 전문병원</p> <p>경남 김해시 진영읍 장동로 3 (경남빌딩 2층) 진영소방서 맞은편 055.724.0988 원장 임영진 (미카엘)</p> <hr/> <p>우리농 직매장 2호</p> <p>이용시간 : 월~금 09:00~17:00 토 09:00~15:00</p> <p>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055.293.5605</p>	<h3>쌍용자동차</h3> <p>마산 제일대리점 (마산역 앞)</p> <p>태도 건 다니엘 010.2232.1456</p> <p>티볼리, 코란도, 렉스턴 스포츠 칸 2020년형 출시·노후 경유차 지원</p> <hr/> <p>GCA 골프피팅 스튜디오</p> <p>클럽/스윙/퍼팅 분석·맞춤 클럽 제작·기성클럽 피팅 클럽 수리·그립/샤프트/헤드/골프화 스파이크 교환</p> <p>마산회원구 봉양로9 온골프존빌딩 (신세계백화점 앞 삼각지공원 건너편) https://blog.naver.com/golfgca</p> <p>☎ 055.282.1872 (18층 72타) 김종환 안토니오 창원대학교 체육학 박사수료</p>	<h3>가톨릭신문 투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16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원 ▶ 12/3 동부유럽 12일 350만원 ▶ 12/8 다낭 마카오 6일 145만원 ▶ 1/16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원 ▶ 1/27 발칸반도 12일 355만원 <p>02.2281.9070 www.cttour.org</p>
---	--	---	---



교부들의 선교 본보기

최원오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교부敎父는 교회의 스승이다. 사도들을 이어 세상의 거짓과 박해에 맞서 신앙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일군 거룩한 일꾼들이다. 교부들의 삶과 가르침은 성경과 더불어 우리 신앙의 기동인 성전聖傳의 핵심이다. 선교학을 본격적으로 다룬 교부 문헌은 없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삶은 이론보다 앞섰고, 박해 속에도 그리스도교가 즐기차게 퍼져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교부들의 가르침을 몇 줄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선교에 관한 화두를 던져주는 교부 문헌 몇 대목을 소개하고 싶다.

복음화율에 관한 비판적 성찰

프랑스 수사 신부였던 마르세유의 살비아누스 교부(400~480년경)가 남긴 작품의 한 대목이다. 사회적 불의와 온갖 착취에 시달리던 가난한 민중의 삶을 외면한 채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던 배부른 교회를 향해 던진 충심의 돌직구다. “신앙인이 늘어날수록 신앙은 줄어들입니다. 자식이 커갈수록 그 어머니는 약해집니다. 교회여, 그대는 번식력이 커질수록 허약해졌습니다. 그대는 나아가면서 뒷걸음질 칩니다. 그대 교회는 힘 때문에 약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대는 종교의 이름은 달고 있지만, 종교의 힘은 지니지 못한 구성원들을 온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신자는 풍성해졌지만, 신앙으로는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자 수가 많아질수록 신심은 더욱 빈곤해집니다. 몸집이 커질수록 영혼은 더 쪼그라듭니다. 더 커졌으나 실상 더 작아졌다는 말입니다.”(『교회에게』 1,4-5) 교회의 외적 성장과 통계 수치를 복음화로 착각하지 말라는 교부 시대의 소중한 증언이다.

새로운 삶의 방식

로마에서 순교한 대표적인 평신도 교부 성 유스티누스(†165년)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렇게 증언한다. “한때 우리는 부와 재산만을 탐했으나 이제는 가진 것을 공동의 몫으로 내놓고 궁핍한 이들과 함께 나눕니다. 전에는 서로 미워하며 죽이기도 했고, 우리 혈통이 아닌 사람들이나 다른 풍습을 지닌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부터는 공동체를 이루어 삽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당하게 우리를 미

워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 애씁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선한 계명대로 살아감으로써 마침내 우리와 더불어 만유의 주님이신 하느님께 똑같은 상급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첫째 호교론』 14,2-3) 낯선 이들을 배척하고 외면하던 혐오의 장벽을 허물고,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연대와 환대의 새 공동체를 일구었다는 아름다운 증언이다. 돈을 섬기며 살아가는 내 삶은 그대로 둔 채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선교일까?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하고, 내가 먼저 복음화되어야 한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대 그레고리우스 교황(540~604년)은 교회 쇄신에 앞장선 대표적 교부다. 그는 브리타니아에 선교사를 파견하면서 켄터베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편지 한 통을 썼다. 여기에는 원주민의 서로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을 존중하라는 매우 중요한 선교 지침이 들어 있다. “신전들을 결코 파괴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우상들만 제거하라고 말하십시오. 신전들을 성수로 정화한 다음 그 안에 제대들과 성인 유해들을 두게 하십시오. 그들의 예배 장소가 파괴되지 않은 것을 보면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오류를 몰아내고 그들에게 친숙하고 소중한 장소들에 와서 참된 하느님을 인정하고 예배할 것입니다.”(『편지』 76) 다른 사람의 것은 모조리 악마적인 것으로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오직 내 것만 유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내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에 어긋나는 교만과 독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룩한 가르침이다. 선교의 기본은 경청과 존중이기 때문이다.